

초중고교 사상 초유 ‘4월 개학’으로 가나

교육부 16~17일중 개학 1~2주 연기 여부 발표
일부선 돌봄 걱정·학습손실 장기화에 발 동동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학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최종 결정과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유은혜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화상 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진정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학 연기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나

선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과 3월 2일 두 차례 개학을 연기하면서 개학일은 3월 2일에서 9일, 또다시 23일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늦어도 17일까지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주 정도 더 개학을 연기하는 것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학이 2주 더 미뤄지게 되면 ‘4월 개학’이 현실화된다. 현재 1단계 휴업(15일 이내)은 2단계(16~34일)로 넘어가며 법정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16~17일 중에 추가 개학 연기 여부

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부에선 그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이 운영돼도 감염 우려에 돌봄 걱정이 여전한 데다 학습 공백에 따른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우려되면서다.

이와 함께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대학 입시 준비에 영향이 불가피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개학이 또 연기되면 긴급 돌봄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점점 지쳐가는 아이를 보며 애가 탄다. 이러다 수시 전형이나 수능 일정까지 밀리면 어떡하나”고 걱정했다.

한편 개학 연기 3주째인 오늘(16일)부터 학생들의 온라인 가정학습을 교사가 관리하는 형태로 바뀐다. 도내 모든 초중고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가정학습을 하도록 안내를 마쳤다. 초·중학교가 제주e학습터, 고등학교가 EBS 사이트에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면 교사가 선정한 학습 콘텐츠에 맞춰 교과별로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합참,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침입 조사결과 발표 CCTV ‘깜깜’… 감시·초동조치 ‘허점’

기지 전대장 보직해임

속보=최근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3월 10일자 4면 보도)한 제주해군기지가 기지 경계태세와 상황보고, 초동조치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 기지와 상급부대인 3함대사령부에 대한 합동검열에 나선 검열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13분 활동가 4명이 제주기지 철조망을 가로 52cm, 세로 88cm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 이 중 2명이 기지내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검열에서는 제주기지의 경계태세와 상황 보고 및 조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경비초소가 50m 간격

으로 배치돼 있었지만 활동가들의 무단 침입을 알아채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 감시 체계는 능동형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아 경보음을 내지 못했다. 당시 폐쇄회로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던 감시병들도 무단 침입한 활동가들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병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으나, 5분대 기조가 바로 출동하지도 않았다.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은 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찾아내고서야 5분대기조에 출동을 지시했다. 결국 철조망이 절단되고 1시간여 흐른 뒤에야 5분대기조가 활동가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 보직해임과 함께 지휘 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문책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부미현기자

대구·경북 방문자 추가 검사 모두 음성

7~15일 현재 47명 누적 검사
어제 제주 3번 확진자 ‘퇴원’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 이후 지속적인 코로나19 추가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 15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총 47명(도민 45명, 체류객 2명)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 도민 5명에 이어 14일 도민 1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또 14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5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

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71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으며, 나머지 67명은 자체 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을 관리를 받고 있다.

14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37명, 출발 탑승객은 323명으로 일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명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또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5일 오전 기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세 번째 확진자 A씨가 15일 오후 퇴원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A씨(대구 출신)가 퇴원한 후에도 제주 체류기간 동안 능동 감시를 진행하며, 능동감시 중 이상 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동시에는 해당 관할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날 퇴원은 도내 확진자 중 두 번째 격리해제 사례로, A씨 퇴원으로 15일 현재 제주에서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2명이다.

오은지기자



코로나 시국... 그래도 봄꽃은 피었네
맑은 날씨를 보인 14일 제주시 도두동 도로변에 심어진 빛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자연체험파크 도시관리계획 ‘통과’

도, 조건부 수용 결정

사파리 이름을 뺀 ‘제주자연체험파크’의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0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수용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자 측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조천읍 선흘리와 북촌리, 탐사리 위원회와의 심도 깊은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또 진출입구는 1개로 일원화하고, 주차 수요와 주차장 내 보행자 이동 동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높이 등 설계방안 검토 ▷가압속 차로 설치 및 교차로 연결 ▷완충녹지 10m 이상 확보 ▷용적률 일부 하향 조정 및 화재·재난시설 설치계획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대의견으로는 제주도종동물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후 반영, 야간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동·식물상 피해 저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제주자연체험파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절차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송은범기자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 25% 감면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제주공항 입주업체 임대료를 25% 감면키로 했다. 또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

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제주도가 지난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공항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업체는 입주업체 36개소 가운데 22개 업체다. 22곳 가운데 감면대상은 14곳, 유예대상은 8곳이다. 송은범기자

MG 새마을금고중앙회 서귀포시협의회 2020년도 이사장 선거

당선과 취임을 축하합니다



MG새마을금고

동홍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장 관 (3선)

대포새마을금고



이사장 고 상 종 (3선)

서홍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경 용 (3선)

제주남원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정 근 부 (2선)

강정새마을금고



이사장 윤 호 성 (2선)

법환새마을금고



이사장 강 종 필 (초선)

서귀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송 보 언 (초선)

태홍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성 범 (초선)

의귀새마을금고



이사장 김 용 태 (초선)

신례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문 현 (초선)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초선)

남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양 경 철 (초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서귀포시협의회 회장 김 장 관

서호새마을금고 이사장 현 문 범
호근새마을금고 이사장 고 학 인

서귀포새마을금고 이사장 윤 재 순
예래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임 수 진

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강 의 근
※ 합동취임식을 생각하고 본 광고로 대체함

제2공항 촉구

『국토부가 결정한 대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은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과 교통분산,
관광, 건설경기활성화,
고용증대, 침체된 제주경제
활력을 위해서 -
국토부가 결정한 대로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서귀포시협의회 1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일동